

주택 담장·대문 허무는 까닭은...

차고지 미증명 과태료 부과에 “자기차고지 갖자” 제주시 울들어 372면 접수... 예년보다 크게 늘어

이달 11일부터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사해 주소를 옮길 때 주차 공간(차고지)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것과 맞물려 최근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자기차고지를 만드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울들어 5월 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를 지원 받아 차고지를 조성했거나 조성 예정인 차고지는 228곳에 372면이다. 이 가운데 144개소·222면에 4억 114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84개소·150면에는 9월까지 보조금 2억 69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난해의 갑절인 10억원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여유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를 만들 경우 단독주택 60만~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은 대지, 잡종지, 주차장, 공장용지에서 가능하다.

2018년과 2019년 한해동안 각각 291면과 273면의 자기차고지가 조성됐음을 감안하면 울들어 급증세가

눈에 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이달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이행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돼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됐지만 확보하지 않더라도 변호관 영치 외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었고, 위치추적이 어려워 변호관 영치는 11대에 그치면서 버티는 시민들이 적잖았다.

시는 지난 15일 차고지를 증명하지 않은 1964건에 대해 차고지 확보명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62%는 2~3년동안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변호관 영치 대상인 차량들이다.

시는 차고지 확보명령 안내문 발

송 후 20일동안 증명하지 않으면 1차, 2차 확보명령과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과태료 부과에는 9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행정시와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빌려쓰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논의중이다. 현재 주차장 1면 임대료는 동지역 97만5000원, 읍면 지역 73만 1520원으로 시민 부담이 적잖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많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들이 차고지증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 감내 않을 것”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북측, 기본적 예의 갖춰라”

청와대가 17일 북한을 향해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더이상 감내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며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 안 되며 남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하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북측이 청와대의 대북 특사 파견 제의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은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이후 우리 정부가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히자 또 다시 대남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 거친 표현을 동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비난했다. 청와대·부미원기자

남북관계, 20년 전으로 후퇴

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 등에 군 배치하고 훈련”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무단 폭파 다음 날인 17일 동시달발로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쏟아내고 군 총참모부가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하면서 남북관계가 2000년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공개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대변인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서 방위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와 필요한 화력 구부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해 전선 경계근무를 철저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선 포병부대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방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 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남북관계를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으로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과 금강산 지역은 다시 북한의 정예부대가 주둔하며 한반도의 화약고로 될 전망이다.

총참모부가 밝힌 행동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대북성과이자 ‘한반도 안전판’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남북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남측 합참에 해당하는 총참모부가 밝힌 이러한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국방부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연합뉴스 질의에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감행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초당옥수수 수확하는 농민 17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서 농민이 초당옥수수 수확 작업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관광협회, 차세대 관광기념품 공모전

7월 1~10일 접수... 총상금 2450만원·수상작 19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제주를 대표할 차세대 관광기념품을 발굴한다.

도는 제주의 문화, 먹거리, 관광명소 등을 반영한 대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전 대상은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이다.

공모전 출품을 원하는 업체 및 개인은 7월 1~10일 참가신청서와 함께 출품작을 도관광협회(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관광기념품 홍보관)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 평가단의 심사를 거친다.

도는 출품작 가운데 19점을 입상

작으로 선정해 7월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기준 및 배정은 상품성 60점, 디자인 20점, 창의 및 실용성 10점, 품질 수준 5점, 일반인 평가 5점 등이다.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 상금 2450만원(대상 1인 500만원, 금상 2인 각 300만원, 은상 3인 각 200만원, 동상 4인 각 100만원, 장려 4인 각 50만원, 입선 5인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수상순위 내 10명을 대상으로 상품개발 자금 지원 특전을 수여한다.

백규탁기자 haru@ihalla.com

읍면 최초로 한림에 북측공영주차장 조성

제주시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면 지역에서 처음으로 북측 공영주차장을 선보인다. 시는 한림리에 62억원을 투입해 124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북측 주차장을 최근 착공해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북측 주차장이 들어서는 한림리 1198-3·4번지 일대는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교통 정체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북측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는 지난해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북측 주차장은 일반 이용자는 물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받았고, 준공시점에 맞춰 심의를 거쳐 본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북측화사업이 완료되면 일대 교통체증 해소와 주차불편이 완화돼 주변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칼슘비료+코코리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페르카 효과

- 잡초의 경감
- N20 60일 공급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높은 저장성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 강력한 라이모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 당을 올리려면
 -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 양양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시사
곰팡이감귤유통상사
제주시시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